

보도시점 2024. 9. 12.(목) 06:00  
9. 12.(목) 석간

배포 2024. 9. 11.(수) 16:00

## 검역본부, 동물질병진단 및 항생제내성 선도기술 전수로 국제협력 기반 확대

- 「제1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 동물질병진단 워크숍」 및  
「제2차 검역본부·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공동 항생제내성 기술훈련」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WOAH) 아시아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 표준실험실 동물질병진단 워크숍」과 「검역본부·세계동물보건기구 공동 항생제내성 기술훈련」을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농림축산검역본부(경북 김천)에서 개최했다.

동물질병진단 워크숍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지정받은 검역본부의 8개 표준실험실\*을 중심으로 아시아 회원국에 대한민국의 케이(K)-동물질병진단·방역 선도기술을 전수·공유하는 국제행사로써,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아시아 16개국 16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 세계동물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지정 현황(연도): 브루셀라('09), 뉴캐슬병('10), 사슴만성 소모성질병('12), 광견병('12), 일본뇌염('13), 구제역('16), 살모넬라증('18), 조류인플루엔자('20)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요 동물질병 8종에 대한 교육 외에, 올해 5월 지정된 세계 최초 육상·수산 분야 통합형 '진단 표준물질 국제 보급 및 표준화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 소개도 진행해 동물질병 진단역량을 더욱 높였다.

\*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 회원국에 기술개발·표준화 등 보급(세계 28개국, 62개 협력센터 지정·운영 중, 아시아는 일본 4, 중국 2, 태국 1, 대한민국 1)

항생제내성 기술훈련은 동물 분야 항생제내성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 아태사무국에서 선발한 6개국\*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으로, 동물 분야 항생제내성 검사에 필수적 기술인 세균분리, 항생제 감수성검사, 효과적인 약제선발 방법 등 현장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들을 전수했다.

\* 참가국: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부탄, 미얀마, 인도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이 아시아 국가들의 동물질병 진단능력을 높이고 항생제내성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세계동물보건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검역본부의 선도기술을 전수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	책임자	과 장	권용국 (054-912-0701)
		담당자	연구관	이 황 (054-912-0703)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책임자	과 장	김재명 (054-912-0722)
		담당자	연구관	임숙경 (054-912-0738)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